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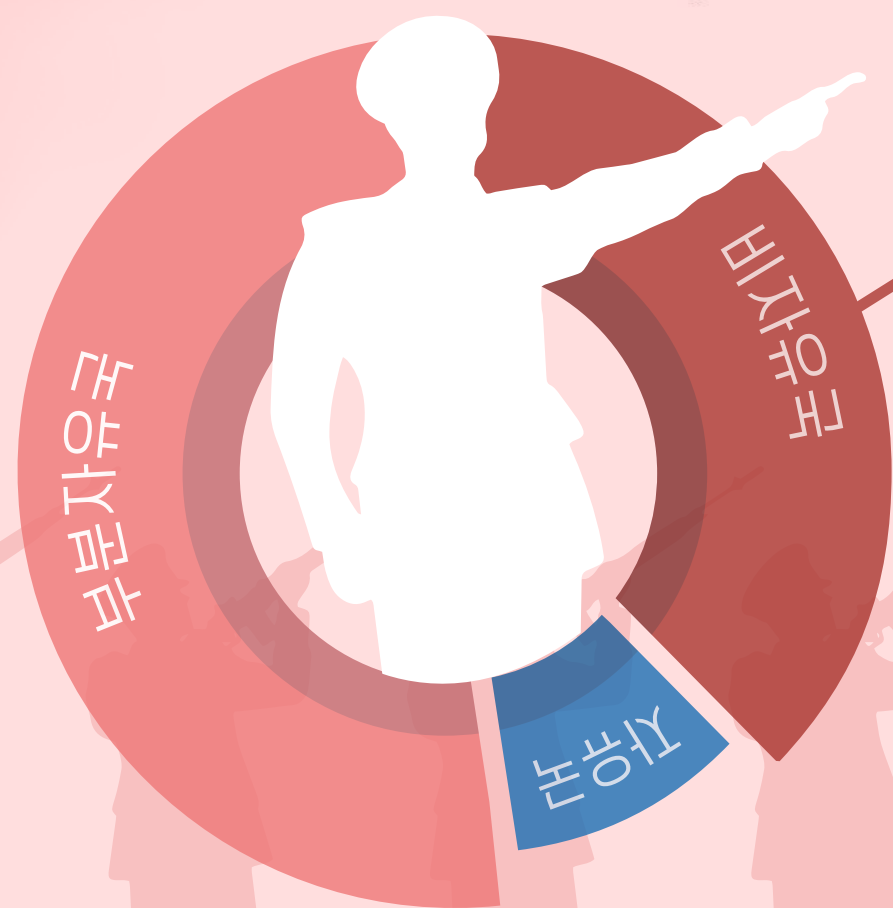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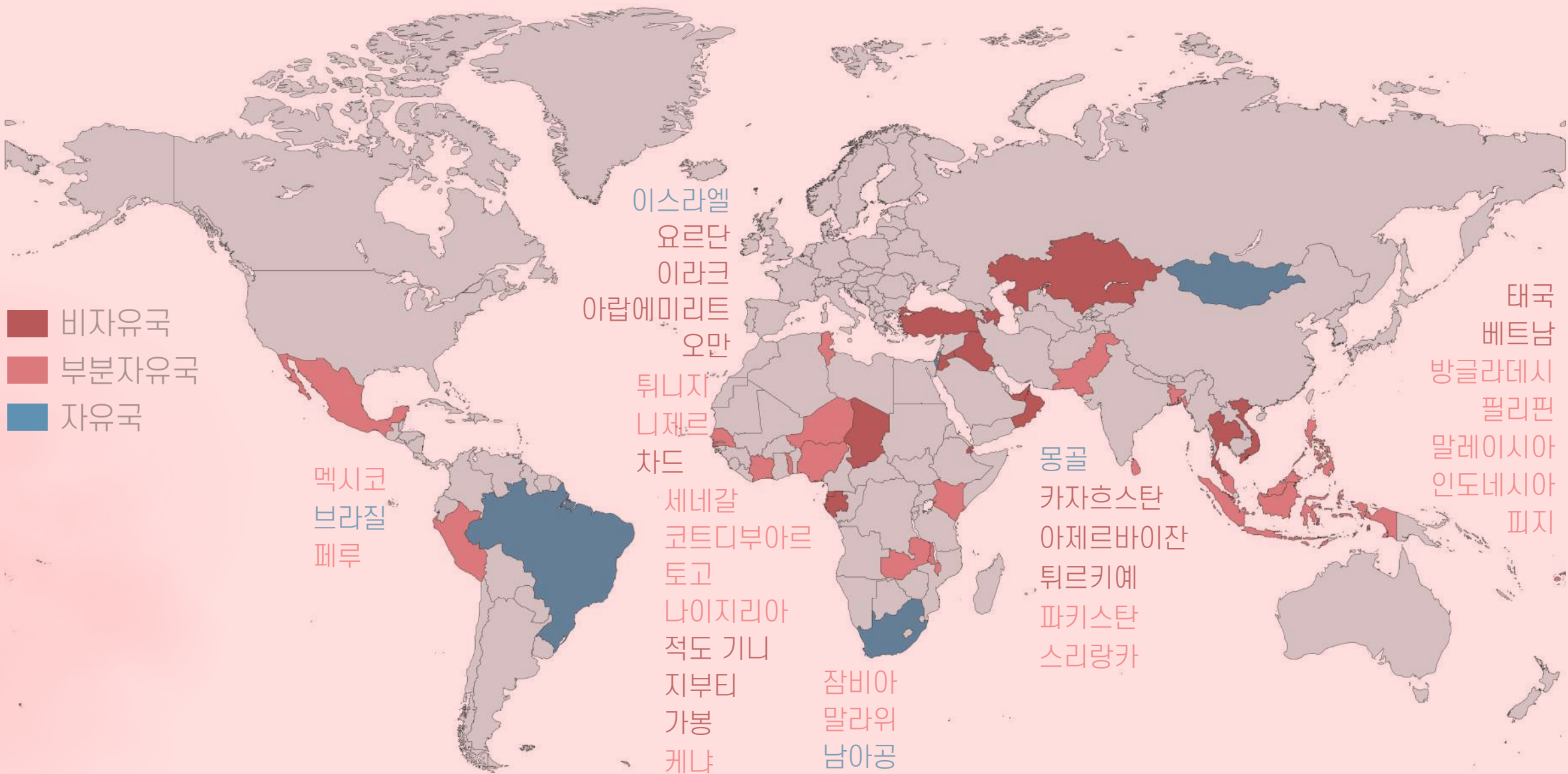
한국산 경찰무기

수출 및 남용 실태

한국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**최루탄**이
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?

한국산 경찰무기가 다른 나라 민중의
민주화 열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.

최근 10년간 35개국으로 한국산 최루탄 1122만 발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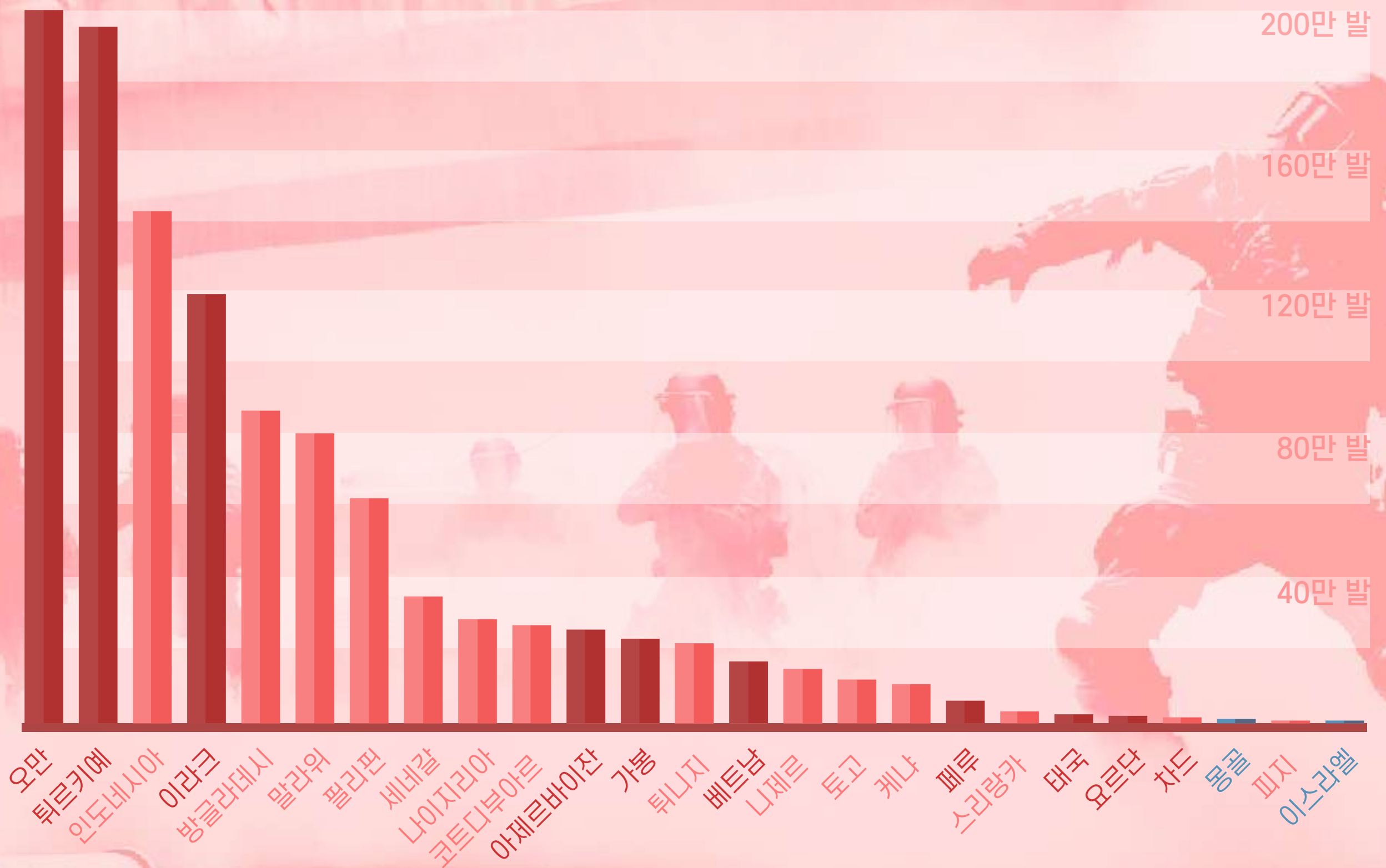


그중 31개국(89%)은 억압적 정권*
(부분자유국 혹은 비자유국)으로
분류된 국가입니다.

*Freedom House, Freedom in the World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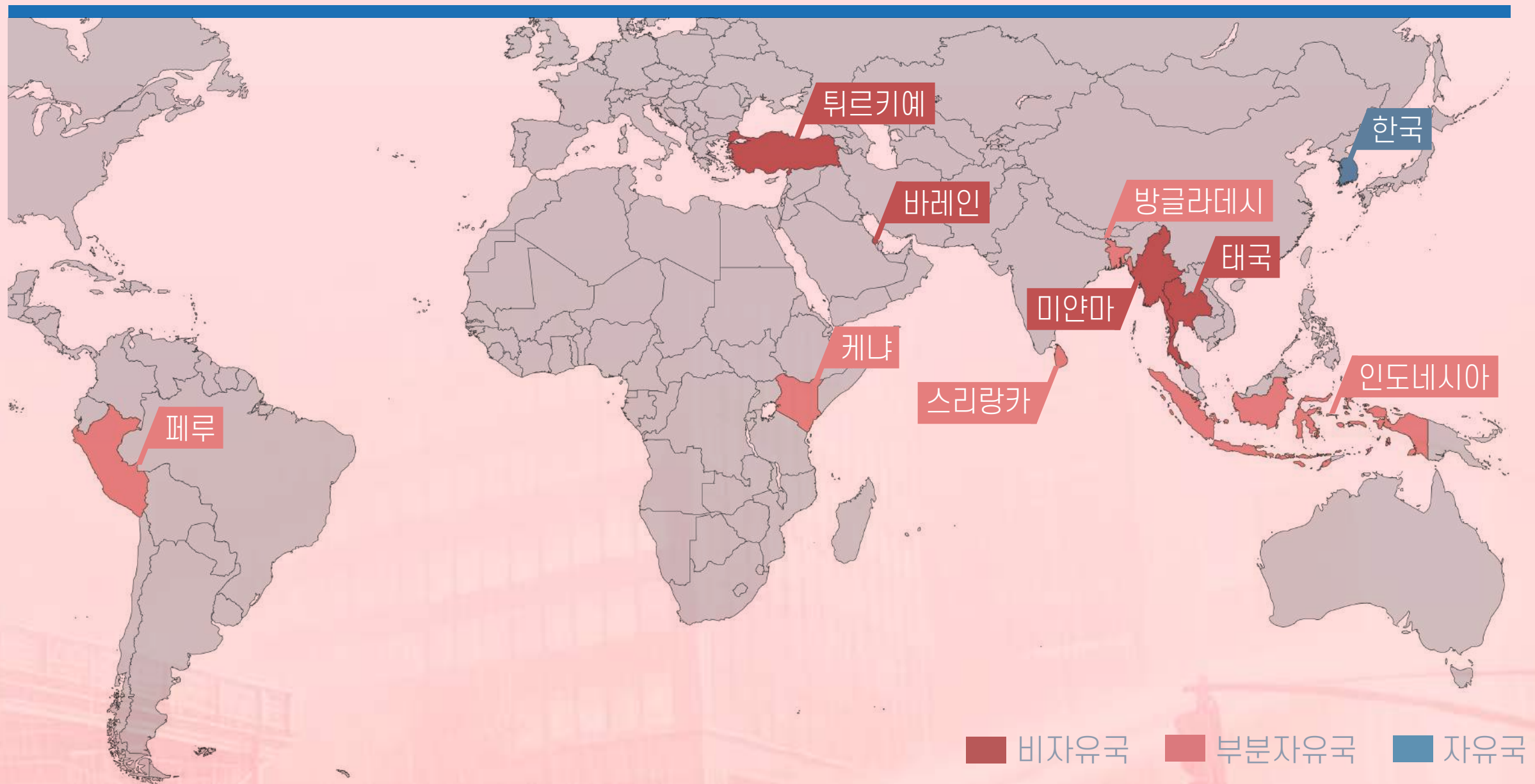
최근 10년간 한국산 최루탄 수출 내역

상위 25개국, 총 1122만 발



해외 경찰무기 감시 활동가가 납품비리를 의심했을 정도로 국가당 수십만, 수백만에 달하는 수출량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.

최근 10년간 최소 10개국에서 한국산 경찰무기가 시위 진압에 남용



최루탄과 물대포 등 한국산 경찰무기를 동원한
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,
적어도 80명이 최루탄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로
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국내 무기박람회에 전시된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**금지품목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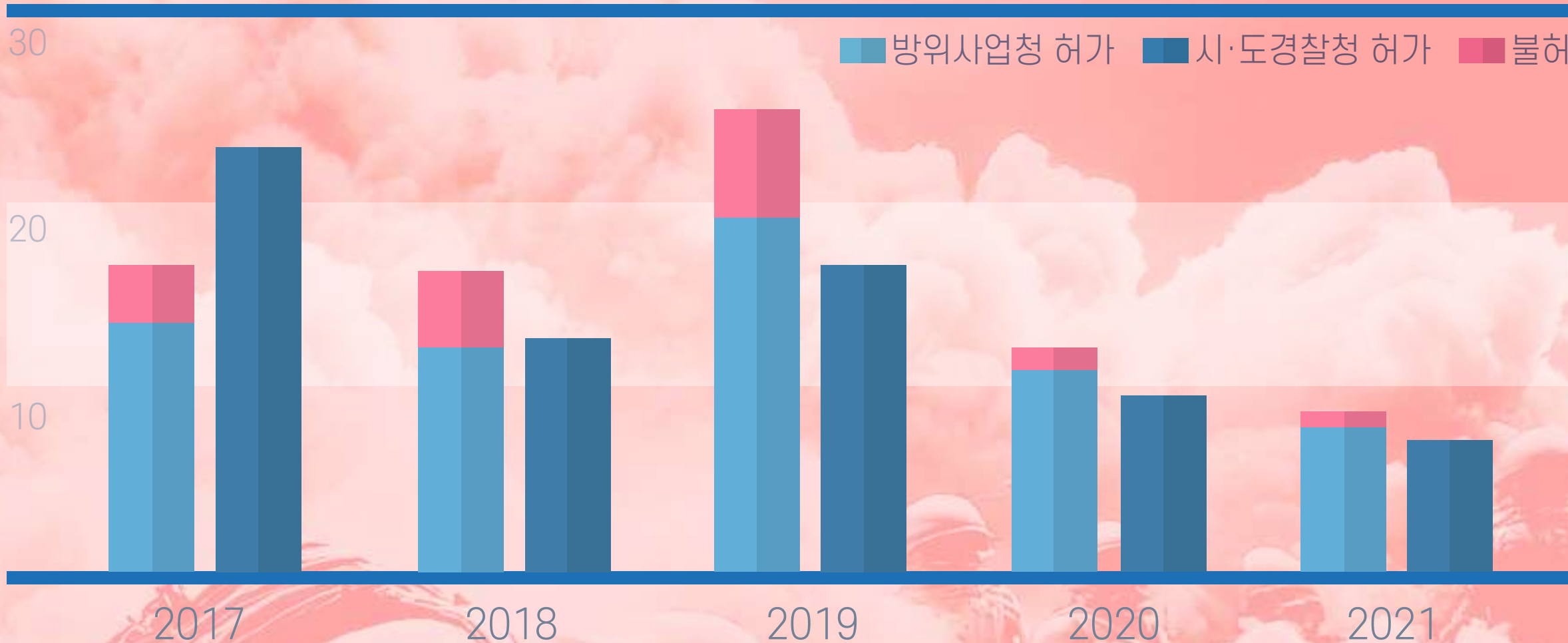
사진: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(좌), 전쟁없는세상(우)

2024 국제치안산업대전*에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
“본질적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, 굴욕적인 금지품목”으로 지정한
고문도구인 엄지수갑, 전기충격봉 등이 전시되었습니다.

* 국제치안산업대전 : 경찰청 주최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치안/보안/안전 산업 박람회

유명무실한 경찰무기 수출통제

방위사업청 및 시·도경찰청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



최루탄 수출 허가 기관인 각 시·도경찰청이
2017~2021년 최루탄 수출을 불허한 사례는 0건!

방위사업청 역시 대부분 수출을 허가했습니다.

허술한 경찰무기 수출통제, 이대로는 안 됩니다.



발행처:

발행일:

2024.11.25

후 원:

 하인리히볼재단